



대학주보

16년만의 등록금 인상, 5.1% 인상률 확정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지난 17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됐다. 인문계열 등록금은 160,000원이 오르게 됐고, 공학계열 등록금은 218,000원 인상됐다.

5% 초반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자 요구를 반영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캠 신하균(사회학 2023)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은 5.49% 인상안에 반대하며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학생 입장에서는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선은 5.49%다. 이는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 대학본부는 상한선인 5.49%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캠 총학 신 비대위장은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인 5.49%로 인상한다면 반감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국제캠 학생회장과의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 논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3일과 24일, 양 캠퍼스에서 기획조정처 주관으로 1차 재정 운용 설명회가 열렸다.

이어 지난 14일과 15일에는 2차 재정 운용 및 등록금 설명회가 양 캠퍼스에서 열렸다. 설명회에는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구성원을 포함한 재학생 모두의 참석이 가능했다.

설명회에서 기획조정처 김도균 부처장은 재정 환경과 등록금 인상 필요성, 그리고 인상안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획조정처는 물가 상승으로 증가하는 교육 투자비, 타 사립대 등록금 인상 사례, 노후화 시설 투자 필요성 등을 주요 인상 사유로 제시했다.

등록금을 5.1% 인상하면 약 10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조정처는 이를 학생 만족도 상승, 위상 제고에 전액 재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학금 및 학생지원비에 30~40억 원을, 교육시설투자에 약 40~50억 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확운위는 지난 15일 찬반 투표를 통해 등록금 인상 여부



지난 13일 재정 운용 설명회가 서울캠 스페이스21 한의과대학에서 열렸다.

(사진=하시언 기자)

를 논의했다. 서울캠에서 찬성 67표, 반대 29표, 기권 4표로 가결됐고 국제캠 역시 찬성 4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제캠 총학생회 박병준(국제학

2017) 회장은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유형Ⅱ 지원 관련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대 분관 신설 같은 시설 분야 투자가 진행될 강렬하게 주장할 예

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5년 등심위 회의록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와 경희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3면〉

의예과 1학년 유급, 2개 학년 동일 과정 밟게 돼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서울】정부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수업을 듣지 않은 의예과 학생 전원이 유급했다. 신입생은 첫째 휴학 신청이 불가능한 우리학교 규정에 따른 결과다. 의대는 2025학년도 신입생과 유급생을 수용할 교육 인프라 관련 대응책을 고민 중이다.

지난해 입학한 학생의 유급으로 2025학년도엔 두 개 학년이 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자연스레 두 개 학년의 학생을 모두 수용할 인프라가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 미리링 시스템과 분반 나눔 형식 도입

을 논의하고 있다.

미러링 시스템은 인원이 두 배 증가한 만큼 강의실을 두 개로 늘려 한 교실에서는 교수가 대면으로 수업하고, 다른 교실에서는 영상 송출로 학생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분반 나눔은 반을 나눠 한 교수가 수업을 두 번 진행하는 방식이다.

의대 행정실 홍진숙 계장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떤 방식으로 수업해야 할지 학사지원팀과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의예과 교원, 학생회와도 만나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진은 학사 운영과 더불어 포괄적인 범위에서 근본적인 해결

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욱(생리학) 교수는 “아직 수업 운영방식에 안내된 바가 없지만 두 개 학년이 10년간 계속 함께 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026학년도 의대 입시 중단 결정을 내리거나 2025학년도 신입생이 위 학년 학생들처럼 유급해 2026년에 다시 교육 과정을 밟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수업 특성 상, 입학 시기가 다른 학생끼리 한 수업을 듣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힘들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 2025학년도 입학생의 자발적인 유급이 발생하고, 2026년에 다시 교육과정을 밟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

김우식(순환기내과학) 교수는 “예과 1학년 과정은 기초 과정이라 교양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해결은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실습이 들어가는 시기 이후의 수업방식에 대해서는 올해 후반기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급 처리로 인한 소송전은 여러 언론에서 우려했던 바와 달리, 유급이 된 1학년 학생의 이의제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 협회(의대협)는 6일 확대전체학생 대표자총회를 통해 의대협의 2025년 투쟁은 휴학계 제출로 진행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전 회장 돌연 사퇴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서울】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자율전공학부 손상혁(자율전공학 2024) 학생회장이 한 달도 안 돼 사퇴했다. 무전공 입학으로 신입생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날 자율전공학부 학생 자치 공백이 우려된다. 자율전공학부는 지난 19일부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 13일, 자율전공학부는 손 씨가 학생회장직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다고 밝혔다. 자율전공학부 측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1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4면에 계속 →